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SENIOR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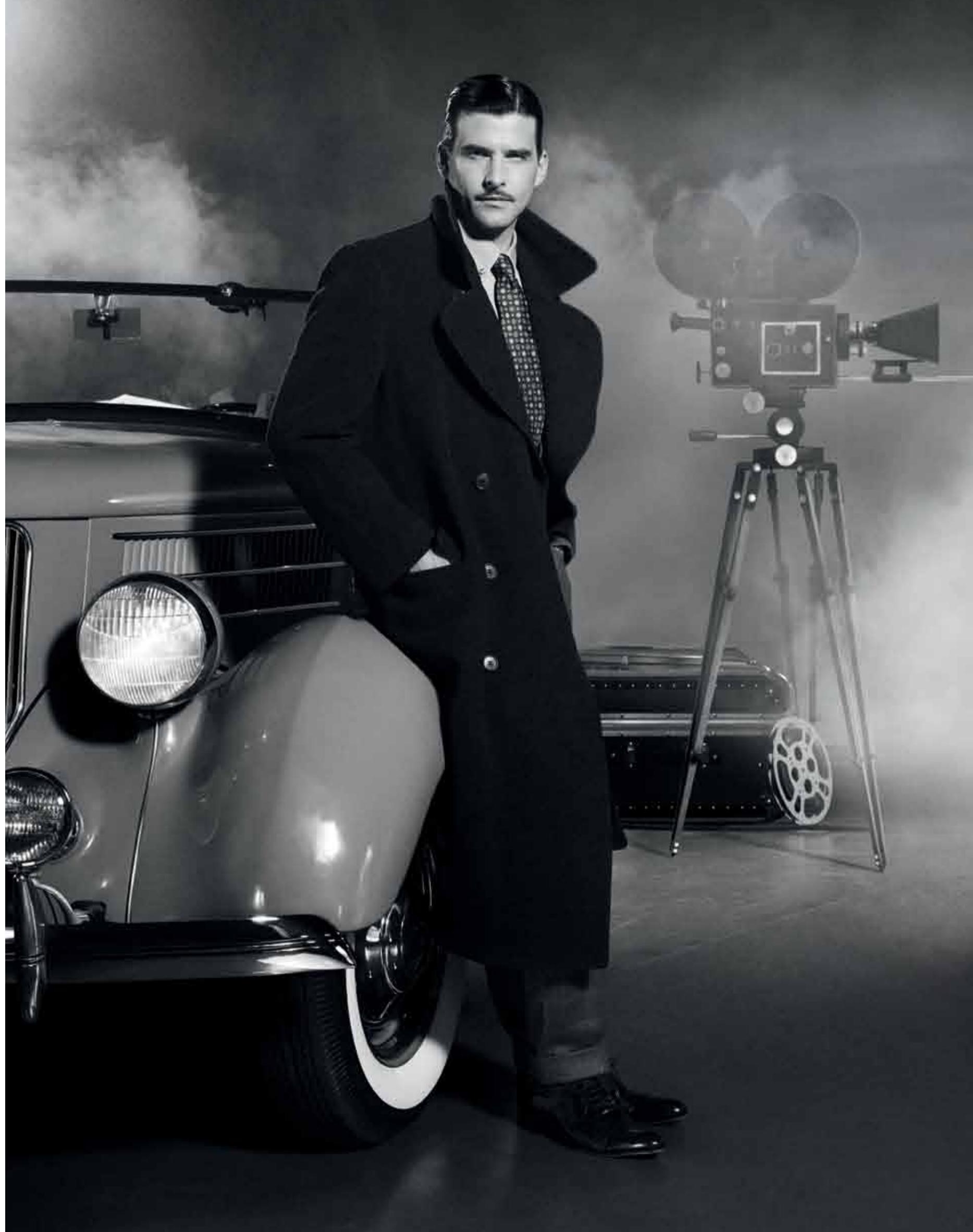
JANUARY
2016
VOL.45

senior.chosun.com



Come Inside

조선일보미술관이 주목한 작가 이진우
로저드뷔 본사 CEO 장 마크 폰트로이



A JOURNEY THROUGH TIME – WITH RIMOWA

The 1920s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 air travel and the golden age of Hollywood. In 1919, Hugo Junkers presented the world's first all-metal commercial aircraft. It was made using the aircraft aluminum alloy discovered by Alfred Wilm in 1906. In 1950, RIMOWA presented its suitcase with the unmistakable grooved design made of the same material – at the time, it was the lightest suitcase in the world. RIMOWA was a real pioneer in the sector, starting the trend for lightweight luggage back then.



RIMOWA Stores Korea : 청담스토어 02.546.3920, 명동스토어 02.6361.8320, 신사스토어 02.540.392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44, 판교점 031.5170.1271, 본점 02.3438.6142, 대구점 053.245.2211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3213.2254, 본점 02.2118.6077, 부산본점 051.810.3166, 센텀시티점 051.730.3253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639, AK 플라자 분당점 031.8023.2166, 롯데호텔 월드점 02.2143.1043
갤러리아 WEST 02.690.3921, 타임월드점 042.720.6240,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3920

www.rimowa.com



ROLF
BENZ



ROLF
BENZ
ONDA



ONDA란? 이태리 어로 “물결”을 뜻합니다. 직선의 레이아웃을 탈피한 유기적인 곡선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121-1 Nonhyun-Dong, Gangnam-Gu, Seoul, Korea. 135-010 T- +82-2-547-7850 F- +82-2-3444-1355 www.youngdonggagu.com

Inside

VOL.45 JANUARY 2016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시니어조선〉

08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들.

10 NEW YEAR, NEW TIME

새 시계를 착용하면 새로운 시간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든다.
2016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격대별 성능 좋은 시계를 골랐다.



조선일보미술관이 주목한 작가, 이진우
머나먼 파리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이 담긴
작품이 미술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980년대에
프랑스로 건너간 화가 이진우의 작품이다.
아시아 현대미술이 급격히 부상한 이후,
서양 미술계는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에서 '다름'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한국의 단색화가 있다.
끊임없는 노동을 통해 자신을 비워내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마음을 담은 한국의 단색화는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뚜렷이 구별되어 극찬을
받고 있다. 이진우의 작품은 한국 1세대
단색화가들의 계보를 잇는 차세대 미술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가을,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그를 만나 그만의 예술 세계와
철학을 들어보았다.

Photographer 양수열(C.영상미디어)

12

WEARING A PERFUME

미국 시인 애머슨은 “행복이란 향수와 같아서
자기 몸에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결코 전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행복을 전하는 향긋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14

로저드뷔 본사 CEO 장 마크 폰트로이

성공한 시니어의 삶과 꿈을 들어보는
연재 컬럼 'CEO의 버킷리스트'.
지난 연말, 하이엔드 시계의 새로운 강자
로저드뷔의 장 마크 폰트로이가 한국을 찾았다.

16

파리에서 만난 21세기 수목화, 이진우

최근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단색화의
맥을 잇는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진우 회백을
미술평론가 윤진섭 교수가 만나 이야기 나누었다.



18

네 바퀴로 달리는 겨울

한국의 겨울은 혹독하다. 눈은 예측할 겨를도 없이 쏟아진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겨울을 나고 싶다면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히로시마·야마구치·시모노세키

일본을 넘나들며 외교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조선통신사.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초청으로,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따라 3일 동안 일본의 서쪽을 누볐다.

22

설국, 아오모리로 떠나는 온천 힐링여행

눈을 바라보며 온천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훈수의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은 겨울여행지로 제격이다.
겨울이면 설국으로 변신하는
아오모리는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24

스크린 속 의상이 그대로 무대 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작품 속
스칼렛 오하라의 의상과 그 의미를 조문수 뮤지컬
의상 디자이너의 설명과 함께 감상해보자.

27

이달의 정보

겨울에 떠나기 좋은 여행지, 여행자를 위한 시계,
스타일리시한 원터 룩을 연출해줄 아이템,
성능 좋은 스피커, 저칼로리의 국물요리
레시피를 담은 책 등을 소개한다.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EDITORIAL & ART
편집장 황정원 hgw@chosun.com
기자 조가희 cgh@chosun.com
객원기자 이은정 euninsa@gmail.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이너 장선희 rioba@chosun.com
교열 최귀열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f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교학사
출판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 지역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서울 강남, 신사, 압구정, 청담, 잠실, 송파, 이태원,
삼청 및 경기 분당의 번화가 카페, 레스토랑, 병원, 은행,
호텔, 스포츠센터, 수입자동차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저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탭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ROGER DUBUIS

HORLOGER GENEVOIS



EXCALIBUR

자체 매뉴팩처 무브먼트 RD01SQ
스켈레톤 더블 플라잉 투르비옹



궁극의 파인 워치메이킹 기술력으로 모든 무브먼트에 파인 워치메이킹에서
가장 까다로운 마크인 제네바 실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매뉴팩처.



LIQUOR

로얄 살루트, 포셀린 테이스팅 세트 프로모션 진행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로얄 살루트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매력적인 테이스팅을 위한 '로얄 살루트 포셀린 테이스팅 세트'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로얄 살루트 포셀린 테이스팅 세트'는 오랜 숙성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로얄 살루트의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블렌딩을 경험하게 해준다. 2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포셀린 메어커 '퓌스텐베르그'와 컬래버레이션으로 석영, 고령토, 장석의 염선된 천연재료에 장인정신을 더해 완성했다. 로얄 살루트 포셀린 테이스팅 세트는 고급 자기 트레이와 자기 글라스(4잔), 크리스탈 디캔터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주요 백화점(신세계, 롯데, 갤러리아)의 로얄 살루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매 영수증을 촬영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정번호(1566-5721)로 발송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02-549-3135 Writer 조가희



필립스 '에너지업'(좌), '펄스릴리프'(우)

TECH

중장년층을 위한 필립스 헬스 테라피 2종
필립스코리아가 빛으로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주는 라이트 테라피 기기 '에너지업(모델명: HF3431/01, HF3418/01)'과 다양한 펄스로 근육 통증을 완화해주는 무선 저주파 자극기 '펄스릴리프(모델명: PR3840/00)'를 새롭게 선보였다. '에너지업'은 고도의 LED 기술로 자연광과 유사한 10,000LUX(룩스)의 밝기와 파장대를 내뿜어 마치 햇빛을 쏘인 듯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한다. 피로 해소,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학습능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조량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 특히 추천할 만하다.

함께 출시된 '펄스릴리프'는 다양한 펄스 자극으로 통증 신호를 억제해 근육 통증 완화를 도와주는 저주파 자극기다. 보편적인 통증 치료법인 TENS(경피신경자극)와 근육 자극법인 EMS(전기근육자극)가 신체의 자연적인 통증 완화 능력을 촉진한다. 또한, 모바일앱으로 무선 제어 및 사용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가격은 에너지업은 내추럴 화이트 32만9천원, 컴팩트 블루 27만9천원이며, 펄스릴리프는 24만9천원이다.

문의 02-709-1200 Writer 이은정

BEAUTY

필로소피, 얼티밋 미라클 워커 나이트 세럼-인-크림

미국의 스킨케어 브랜드 필로소피가 멀티-리쥬브네이팅 나이트 타임 크림 50ml와 콘센트레이티드 액티브 플랜트 셀 세럼 10ml로 구성한 '얼티밋 미라클 워커 나이트 세럼-인-크림'을 선보인다. 세럼에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아이리스꽃 추출물 농축액을 담았다. 크림은 특허받은 하이 퍼포먼스 바이-레티노이드 기술을 도입해 피부 속 깊숙이 레티놀 성분 전달을 돋는다. 크림과 세럼이 만나 피부 속 콜라겐의 자연 재생을 돋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데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 또한, 주름 개선 가능성 인증을 받아 잔주름 및 깊은 주름 개선 기능을 입증받았다. 화장품 속에 함유된 성분의 신선도를 위해 사용 직전 크림과 세럼을 섞을 수 있도록 개별 용기로 제작했다. 매일 저녁, 세럼과 크림 단계에 사용하면 된다. 필로소피의 '얼티밋 미라클 워커 나이트 세럼-인-크림'은 1월 1일부터 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등과 온라인에서는 롯데닷컴, 신세계몰, H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9만5천원이다. 문의 080-850-0708 Writer 조가희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



FASHION

에르메네질도 제냐, 2016 S/S 광고 캠페인 공개

이탈리아에서 온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남성을 위한 패션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2016 봄/여름 시즌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밝음'과 '투명함'을 다채롭게 변주한 것을 주제로 컬러풀한 체크 패턴과 산뜻한 색상의 컬렉션이 눈길을 끈다. 제냐는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남성패션을 이끄는 리더십과 최고급 소재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냈다. 화이트 색상으로 배경을 세팅해 제냐의 에너지 넘치는 이번 시즌 컬렉션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여유로운 포즈를 취한 여려 명의 남성을 비춘 독특한 앵글로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추구하는 '새로운 리더'를 보여주며, 이들의 현대적인 스타일과 개성에 초점을 맞췄다. 영화 배우와 감독,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출신 배우 벤 노스버(Benn Northover)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메인 모델로 참여했다. 심플한 배경에 제냐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낸 작업은 유명 포토그래퍼 듀오 이네즈 & 비누드(Inez & Vinodh)가 진행했다.

문의 02-2240-6524 Writer 조가희

ART

예술의전당 <내셔널 지오그래픽> 展

인류가 걸어온 문명과 자연의 미스터리를 환상적인 사진과 글로 보도해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역사, 문명, 우주, 탐험, 수중, 특별관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와 미래, 우주와 수중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호기심을 탐구하는 인간의 송고한 노력과 열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타이타닉' '아바타' 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감독 제임스 캐머런이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한 기록과 '바다의 백작 마님'으로 불리는 저명한 여성 해양생물학자 실비아 얼 박사가 탑승한 실제 잠수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배우 조민기가 오디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해 목소리 재능 기부에 나섰다. 조민기는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사진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더욱 뜻깊다. 오디오 가이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조민기가 선정한 밤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그의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3월 2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기람미술관. 문의 02-6263-2621 Writer 황정원



Canon

Delighting You Always

極

사. 실. 주. 의

세계 최초 5060만 초고화소
이제, 수퍼픽셀 시대를 열다

극한의 디테일이 선사하는 놀라운
지금껏 보지 못한 비주얼의 세계
타협을 모르는 당신을 위해

5의 이름으로 또 한번 혁신하다



EOS
5Ds

2015 EOS 5Ds 마지막 구매 찬스

EOS 5Ds 또는 5DsR을 구매하시면 정품 배터리 그립 등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15.12.01 – 2016.01.15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00~500만원대 1 해밀턴 자체 제작 무브먼트 H-10-S를 장착하고, 42mm 크기의 다이얼을 갖춘 '레일로드 스텀파운데이션 H40655751'은 1백67만원, **해밀턴**. 2 월드타이머 기능을 탑재하고 42mm 크기의 다이얼을 갖춘 'FC-718MC4H6'은 4백60만원대, **프레드릭 콘스탄트**. 3 오토매틱 무브먼트 707을 탑재하고 30m 방수 가능 '론진 마스터 컬렉션 레트로그레이드 문페이즈'는 4백만원대, **론진**.



600~1500만원대 1 오토매틱 무브먼트 678 칼리버를 탑재하고 42시간 자동 작동이 가능한 '마스터 컬렉션 문페이즈'는 1천2백60만원, **론진**. 2 크로노스위스의 매뉴팩처 무브먼트 C122를 탑재하고 40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시리우스 레귤레이터'는 720만원, **크로노스위스**. 3 자동기계식 P9100을 탑재하고 72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라디오미르 1940 3 데이즈 오토매틱 티타니오'는 1천2백45만원, **파네라이**.



NEW YEAR, NEW TIME

새 시계를 착용하면 새로운 시간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든다. 2016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격대별 성능 좋은 시계를 골랐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양수열(C.영상미디어)

1600~3000만원대 1 무브먼트 칼리버 2385를 탑재하고 40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로열 오크 크로노그래프 밀라노 리미티드 에디션은 3천2백만원대, **오데마피게**. 2 수동 기계식, P.2002/E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192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라디오미르 1940 이퀘이션 오브 타임 8데이즈 아치아이오는 2천3백38만원, **파네라이**. 3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핸드 와인딩 워치로 48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피아제 알티플라노 900P는 3천3백만원대, **피아제**. 4 C.283 칼리버를 장착하고 42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시리우스 레귤레이터 점핑아워'는 2천2백만원, **크로노스위스**.



4000만원대 이상 1 오토매틱 L.U.C 96LD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65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L.U.C 루나 빅데이트는 4천5백만원대, **쇼파드**. 2 AP 칼리버 2329/2846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38시간 자동 작동 가능한 '줄스 오데마 듀얼 타임'은 4천3백만원대, **오데마피게**. 3 피아제가 자체 개발한 스켈레톤 무브먼트 1200S 알티플라노를 탑재한 '스켈레톤 울트라-씬'은 6천9백만원대, **피아제**.



“쉿!~” 피부 미인들의 비밀

쿠션 속 수분은 달라야 한다!

미네랄 워터를 머금은 촉광쿠션



이지함 미네랄 인 쿠션

닥터코스메틱 이지함화장품

판매처 : 이지함화장품 쇼핑몰(www.ljhmall.com), 드럭스토어(GS와우스)
이지함 피부과 : 강남, 강북, 구리, 구미, 분당, 부산, 여의도, 이대, 일산, 청담, 천호, 평택
소비자 상담실 : 080-700-1544

WEARING A PERFUME

미국 시인 애머슨은 “행복이란 향수와 같아서
자기의 몸에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결코
전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행복을 전하는 향긋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양수열(C.영상미디어)



1 오렌지 플라워, 네롤리, 레몬, 베르가모트가 어우러져 상쾌하면서도 모던한 마스크향으로 완성한 '끌론 앙델레빌' 100ml 30만원대, 에디션 드 퍼퓸 프레
데릭 말. 2 진한 타바코향과 꿀을 적셔 말린 달콤한 과일향이 조화를 이루는 '볼류트'는 75ml 19만8천원, 딥티크. 3 천연 베르가모트 에센스와 시칠리아산
레몬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콜로니아 오 드 코롱'은 100ml 18만5천원, 아쿠아 디 파르마. 4 다이애나 비를 표현한 향수로 관능적이면서 부드러운 향을 선
사하는 '로얄 워터' 75ml 34만8천원, 크리드. 5 레몬과 베르가모트가 청량한 향을 내고 은은한 우드와 마스크향을 선사하는 '아쿠아 유니버설'은 70ml 18만
6천원, 메종 프란시스 커정. 6 오렌지와 레몬의 상쾌함과 마저렴 허브, 수련, 재스민 꽃향이 어우러지는 '비아 카메렐레'는 100ml 16만2천원, 까르뚜지
아. 7 파우더리하고 머스카향의 따뜻함과 오리엔탈 노트의 강한 농축액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풍기는 '라다님 18'은 100ml 32만원, 르라보. 8 로즈
향으로 시작해 상쾌한 시트러스향으로 이어지고 우드와 마스크향으로 마무리되는 세련된 향의 '블랑쉬'는 100ml 29만원, 바이레도. 9 상쾌한 향으로 시작
해 꽃향과 앤버향이 어우러져 따뜻한 잔향으로 마무리되는 '쥬니퍼슬링'은 100ml 31만8천원, 펜할리곤스.

문의
까르뚜지아 02-555-5152
딥티크 02-514-5167
르라보 02-517-5218
메종 프란시스 커정 02-514-5167
바이레도 02-3479-1688
아쿠아 디 파르마 02-517-5218
에디션 드 퍼퓸 프레데릭 말 02-3479-6258
펜할리곤스 02-555-5152
크리드 02-517-5218



2016
FLYING
SOON!

2016.2.23 대구/서울 동시 티켓오픈

THE BROADWAY MUSICAL
WICKED

THE UNTOLD STORY OF THE WITCHES OF OZ

뮤지컬 **위키드**

BROADWAY'S BIGGEST BLOCKBUSTER MUSICAL



로저드뷔 본사 CEO 장 마크 폰트로이 “멋진 인간관계와 소소한 만족감이 행복의 원천”

성공한 시니어의 삶과 꿈을 들어보는 연재 칼럼 ‘CEO의 버킷리스트’. 지난 연말, 하이엔드 시계의 새로운 강자 로저드뷔의 장 마크 폰트로이(Jean-Marc Pontroué)가 한국을 찾았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과 참신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로저드뷔의 매력과 유러피언 특유의 여유가 물어나는 CEO의 인생 철학을 들어본다.

Writer 황정원 · Photographer 이경호(C.영상미디어)

로저드뷔만이 할 수 있는 일

세상에는 하이엔드 시계가 많습니다. 로저드뷔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계는 존재했죠. 젊은 브랜드인 로저드뷔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타 시계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로저드뷔가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차별점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시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즉,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술력이죠. 저희 제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따로 로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더블 투르비옹’ 하면 로저드뷔라는 공식이 있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젊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맞물려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

고 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동영상 제작 등 시장 진출에 있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브랜드 철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로저드뷔에서 새로운 임직원을 채용할 때 원칙으로 삼는 것이기도 하지요. 첫째는 ‘놀라움을 창조하라(Creating incredible)’입니다. 제품을 만들든 고객을 대하든 자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감하게 도전할 것(Daring approach)’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전의식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Why not’을 필두로 ‘시계업계에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불가능

이란 없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봅니다. 세 번째는 ‘연대의식(Team spirit)’입니다. 로저드뷔는 큰 브랜드가 아니다보니 제품 개발, 마케팅 부서 등 각 팀마다 미션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소홀함 없이 미션을 수행하고, 그중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회사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로저드뷔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한국지사에서 많은 분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저드뷔에 있으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모든 제품이 제네바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결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이 인증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모든 조건이 제네바실의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공정뿐 아니라 조립, 마감 등 모든 것에 있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브먼트를 만드는 데 타사 대비 40% 정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제네바실은 연구소가 따로 있고 조건과 규정을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 업계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통

제력이 있고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시계업계가 이례적입니다. 그 기준점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도달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되지요. 따라서 제네바실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마케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기술력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CEO가 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로저드뷔만의 아이코닉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명품시장에서는 브랜드마다 그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로저드뷔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브랜드의 정신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스칼리버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여성 제품을 비롯해 향후 10년에 걸쳐 로저드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엑스칼리버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명품업계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관광산업이 명품시장의 성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6년 전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도 롯데, 위키힐, 신라 면세점이 있었는데, 매장을 찾는 고객 대부분이 일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내국인 시장이 성장한 것은 15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명품 매장 개수도 많아졌고 앞으로도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은 매우 경쟁력이 있으며, 독특한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수요와 면세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명품업계의 10대 시장으로 꼽히는 이유지요. 한국과 가까운 홍콩만 해도 90%가 면세 시장이거든요. 둘째로는 프랑스 하면 파리, 영국 하면 런던 하는 식으로 각 나라를 떠올렸을 때 구심점이 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서울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그런 도시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이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안전하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일상에서 찾는 작은 행복

저는 달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틈틈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와 유사성이 많지요. 살다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달릴 수 없는 평계는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힘

들어도 하기 싫어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조깅을 즐깁니다. 한국에 와서 흥미로웠던 사실 중 하나는 사우나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저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버킷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써 내려간다면 A4 용지로 10페이지 정도는 거뜬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스포츠, 와인, 영화, 여행 등에 대한 많은 소망이 있지요. 특히 여행은 많이 다닐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지요. 일을 하다보니 세계적으로 핫한 도시는 꼭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행을 다니며 행복을 느낍니다. 다만, 비즈니스 여행이 많다보니 그 도시의 진면목을 알기는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서울만 해도 공항과 묵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한국인의 삶이나 도시 외곽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아름다움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료칸에서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의 시골 풍경이나 일본인의 삶에 대해 알 수 없었지요. 그 때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음에는 이곳의 친구들과 상의해서 한강에도 가보고 스키 리조트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여행이 주는 또 다른 묘미는 멋진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친선대사를 위촉하면서 추신수 선수를 알게 된 것처럼, 이 또한 제가 CEO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계속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버킷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걸 깨뚫는 핵심은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웬만한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조깅

우리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소소한 기쁨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뉴욕, 런던, 베를린 등 세계 5대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5대 마라톤 대회를 완주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 이겠지요. 저는 그저 앞으로도 계속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으면, 이왕이면 함께 뛸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유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페라리나 전용기 같은 것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필리프 델레름(Philippe Delerm)의 〈일상의 작은 기쁨(The Small Pleasures of Life)〉이라는 책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소소한 기쁨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이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아해 세 가지 소원을 빈다면 개인적으로는 건강, 놀랄 만한 아이디어, 행복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CEO's Bucket List



▲ 로저드뷔가 홀보대사인 추신수 선수에게 증정한 모델
엑스칼리버 45 스켈레톤 더블 플라잉 투르비옹 핑크 골드 스크루(Excalibur 45 Skeleton Double Flying Tourbillon Pink Gold Screws).

조선일보미술관이 주목한 작가 파리에서 만난 21세기 수목화, 이진우

아시아 현대미술이 부상하면서 한국의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단색화의
맥을 잇는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진우 화백을
미술평론가 윤진섭 교수가 만나 이야기 나누었다.

Writer 황정원 · Photographer 양수열(C.영상미디어)

요즘 단색화는 그야말로 화단에서 '대세'로 통한다. 국내 유수 언론에서 단색화를 집중 조명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단색화 특별전이 연이어 열리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 돌풍의 핵에 미술평론가 윤진섭 교수가 있다.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이자 시드니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한 그는 '단색화'라는 말의 탄생부터 부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함께한 사람이다. 단색화는 색을 제한하거나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작가의 철학과 몸성이 자연미와 함께 녹아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미니멀리즘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 이진우는 한국 단색화의 명맥을 잇는 작가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무섭게 떠오르는 작가 중 하나다. 한지와 먹을 주 재료로 한 그의 작업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한지를 덮는 과정을 여려 번 반복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정신인 겹장을 표현하고 있다. 대학 졸업 직후 파리로 날아가 정착한 이 화백은 1980년대 이후 파리를 비롯한 유럽, 중국, 한국 등을 꾸준히 오가며 전시와 개인작업을 해왔다. 아직까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려진 편이지만 2016년 기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를 준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전시 기획에 조음하여, 미술평론가 윤진섭이 이진우 화백을 만나 그간의 파리 생활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인터뷰했다.

윤진섭 : 인생의 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았는데, 처음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이진우 : 제가 대학에 다니던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나 역시 파리에 에펠태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었죠. 대학시절 계엄령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로 정신없이 4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떠났어요. 어떤 이는 미국으로, 어떤 이는 프랑스로. 저도 무작정 파리행을 택했지요. 갔더니 에펠태도 있고,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세계의 미술이 교류하는 예술의 중심지가 파리더군요.

윤진섭 : 그렇게 가서 무엇을 배웠나요?

이진우 : 파리에 막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일단 평기를 받아야겠기에 내가 석고상이나 모델을 놓고 그린 데생을 가지고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aris, 이하 보자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교수가 "이 데생은 유러피언 스타일이다. 너는 한국인인데 왜 유럽식으로 그림을 그렸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볍게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총을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고 몇 날 머칠, 아니 몇 년을 울며불며 괴로워했어요. 나는 한국인인데 왜 서양식 옷을 입고 서양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있나,

올해 파리에서 제 전시에 대해 소개한
서문에 보면 '나는 머리 없는 작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작업실에 갈 때
머리를 떼어놓고 몸만 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재된 것을 수없이
반복되는 노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런 기괴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매일같이 죽을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미술을 공부함과 동시에 내가 한국인이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윤진섭 : 그때 충격을 받고 나서 한국의 미술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비판도 하고 반성도 했을 것 같은데.

이진우 : 당연히 비판을 많이 했지요. 보자르는 여러모로 한국과 많이 달라요. 당시 제가 청강생 자격으로 미술재료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안료를 공부할 때면 화학자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색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의 화학 방정식은 어떠하고 A가 다른 색과 섞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건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A의 특성상 기름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과 중첩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이야기를 화학자가 이야기해줘요. 아주 치밀하고 분석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교수가 와서 "야, 그게 뭐니" 하고는 당신의 봇으로 내 그림을 다 지웠어요.



▲ 무제(Untitled), 140x100, 2015



윤진섭 : 저도 한국에서 이론으로나마 미술을 가르쳐봤지만 시스템적으로 프랑스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이 화백은 파리에서 여러모로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예술가로서의 기질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진우 :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다 자란 뒤에 아버지께 여쭈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왜 그림을 그리죠? 우리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나요?" 하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이 헤르만 헤세의 수채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는 문학가인데요?" 했더니 그가 수채화도 곧잘 그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건축가이면서 그림에도 조예가 있으셨던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제가 세 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집에 젊은 조각가가 세 들어 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국립현충원에 있는 무명용사비(한국전쟁 때 사망한 무명용사들을 위한 위령탑)를 조각한 최기원 선생입니다. 그 위령탑을 제작 하던 시기에 흥익대학교 조교를 하면서 우리 집에 사셨어요. 그 선생님이 날 무릎에 앉혀놓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가르쳐주시곤 하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세 살짜리 꼬마가 귀여웠겠지요. 때로는 그분이 위령탑 만들려 가실 때 저를 무등 태워서 작업 장소 까지 데려가기도 했어요. 최 선생님이 돌을 쪼면서 조각할 때 저는 그 옆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때 그 아저씨를 따라다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림을 그렸으니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 그리는 게 재미있었어요.

윤진섭 :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림에 조예가 있으신 부친과 조각계의 유명한 작가가 되신 최기원 선생을 만났으니 예술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셈이네요. 1983년도에 파리로 유학을 간 이후에는 보자르에서 만난 아브라함 핀카스(Abraham Pincas) 교수의 영향이 가장 커졌을 것 같은데,

단색화의 특징은 수행성, 정신성, 반복성이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다보면 물성이 생기면서
'몸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차별화되는 점이고,
그걸 세계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과의 추억도 이야기해주세요.

이진우 : 아브라함 핀카스 교수는 유대인으로 20대 초반에 파리에 유학을 와서 27살에 보자르의 강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보자르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했고 이후 여러모로 아버지처럼 보살펴주신 스승입니다. 특히 공부가 끝날 무렵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제 미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추억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교수님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가 "진우야, 너는 한국인이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선택해라.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뒤풀이를 다니며 인맥을 쌓을 것인지,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고 그림에 매진할 것인지."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곳은 파리였고, 저는 세계 미술계에서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한국 출신이에요. 작품으로 승부를 봐야 했죠. 교수님은 또 "앞으로 아시아 미술이 세계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전시를 몇 개 기획해서 열어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1989년에 열린 <아시아미술 4인전>은 잊지 못할 전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작가가 인도인 2명과 중국인 1명, 그리고 저까지 해서 4명이었는데 그때 참여한 중국 작가가 그 유명한 첸젠(Chen Zhen)이에요. 그 전시를 계기로 그와 교류할 수 있었죠.

윤진섭 : 그렇다면, 핀카스 교수가 아시아 미술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미술 재료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국적인 미술 재료에 대한 고민도 했나요?

이진우 : 당연하죠. 당시에 서양미술 재료를 공부하면서 '나는 한국인인데 우리 미술 재료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미술은 서양미술 재료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서양미술 재료를 선명하게 공부하고 나니 우리



▲ 무제(Untitled), 59x168, 2014

미술 재료가 뚜렷이 구별되더군요. 우리 미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필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재료를 알기 위해 서양미술 재료를 공부하던 그 방법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종이 만드는 법을 직접 배우기 위해 종이 생산자한테 가서 그걸 직접 만들어보고 생활하고, 또 그 종이를 연구하는 카이스트 임업 연구원의 박사님을 찾아가 그분이 연구한 컴퓨터 단층촬영과 논문 등을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종이 만드는 분들이랑 단짝처럼 친해져서 그분들이 파지가 나오면 저한테 몇 천 장씩 주시더라고요. 흥수 때문에 종이에 얼룩이 지면 못 팔잖아요. 덕분에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종이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어요. 봇 만드는 법, 묵 만드는 법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파리에서 소산 박대성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 전시에 갔는데, 거기서 나를 보시더니 그림을 그리시니, 혹시 추사를 아시나 물으시더라고요. 그

래서 내가 알긴 알지만 잘은 모른다고 했더니 "한국 작가가 추사를 모르면 되나" 하시면서 그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한국 작가니까 한국의 위대한 선배님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 길로 인연이 되어 그분의 작업실에도 가고, 선생님 댁에서 지내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서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서예를 하는 것은 매일 된장찌개를 먹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한국 사람으면서 매일 햄버거 먹고 서양 노래 들으면서 서양 옷 입고 서양 철학 공부하면 서양화 됩니다. 저는 매일 된장찌개 먹고 봇글씨를 쓰면 진정한 한국 사람이 제 안에 들어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론과 물질을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어요.

윤진섭 : 이 화백 작품을 보면 한국 단색화 1세대 작가들의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파지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지를 바르고 쓰고 바르는 작업을 반복하잖아요. 단색화의 특징은 수행성, 정신성, 반복성이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다보면 물성이 생기면서 '몸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차별화되는 점이고, 그걸 세계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진우 : 바로 그거예요. 올해 파리에서 제 전시에 대해 소개한 책자의 서문에 보면 '나는 머리 없는 작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작업실에 갈 때 머리를 떼어놓고 몸만 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재된 것을 수없는 반복의 노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개념이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심한 노동을 반복해야만 제 속에 있는 '무엇'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내 몸에 들어 있는 된장찌개 냄새나 김치가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을 많이 퍼내면 맑은 물이 나오듯이, 제 속에서 그런 맑은 물이 나왔으면 하는 염원으로 퍼내고 또 퍼냅니다. 또 하나는 서양미술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비주얼 아트라고 한다면 동양미술은 그것을

안으로 감추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하고 종이로 덮은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감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겸양의 마음으로 종이를 붙이고 또 붙이고 했어요. 이제는 단순노동이 재밌어졌어요. 하루 종일 종이를 붙이고 또 붙이고 손으로 갈다보니 집에 못 갈 정도로 재밌어요. 그러다가 손이 마비돼서 수술을 하는 지경까지 갔죠. 중단이 안 되니까.

윤진섭 : 바로 그런 데서 '몸성'이 드러나는 거죠. '몸이 말한다' '예술가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얻는다' 하는 게 스님들이 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비슷한 경지 같기도 합니다. 이 화백 작품을 보면 전통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엿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진우 : 어떤 분이 제 그림을 21세기 수묵화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작품이 뛰어나고 우쭐하고 화려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빈 집에, 빈 마당에 제 작품이 걸려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조상의 위대한 유산인 한지가 붙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늘 편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느꼈으면 해요.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느낀 편안함,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위로받는 것 같은 편안함을 제 그림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진섭 : 끝으로 2016년의 계획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파리에서 활동할 것인지, 한국에서 활동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진우 : 미술 작업은 계속 파리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에서는 제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파리는 세계 미술의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외로운 섬 같아서 그 속에서 철저히 고립될 수 있어요. 2016년에는 미술 쪽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화집을 발간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인전도 열리고요. 전시는 아마도 지금처럼 유럽과 중국, 한국을 두루 오가며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은 모국이다보니 어머니 품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면 안아주는 내 나라. 옮기거나 개인전을 통해 모국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습니다.



▲ 파리에 있는 이진우 화백의 작업실 풍경.

네 바퀴로 달리는 겨울

한국의 겨울은 혹독하다. 눈은 예측할 겨를도 없이 쏟아진다. 어느 날 출근길,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은 가차 없이 쌓였다.

어떤 언덕에서도 주춤거리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고 싶다면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Writer 정우성(GQ KOREA) 자동차담당 기자)

뉴 아우디 TTS

자동차가 내 몸처럼 움직일 때의 쾌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감각은 운전 재미를 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될 것이다. 아우디 TTS를 운전하는 내내 '쾌활 쾌快' 한 글자가 생각났다. 북악 스카이웨이 언덕길을 공략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도록 상쾌했고, 쭉 뻗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릴 땐 매캐한 가슴이 둘리도록 통쾌했다. 2.0리터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310마력, 최대토크 38.8kg·m을 낸다. 시속 100킬로미터 가속 시간은 4.7초다. 센터페시아에는 그 훈한 모니터가 없다. 대신 운전석 계기판을 거대한 모니터로 쓰고, 버추얼 콕핏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른 여느 차처럼 속도계와 엔진 회전수를 위주로 볼 수도, 계기판 전체를 거대한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분히 미래적이고 그 자체로 흥미롭다. 탄생부터 아이콘의 지위를 획득한 디자인은 이번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누구도 배신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호기심과 소유욕만 자극하고 나섰다. 여기에 아우디 사륜구동 시스템 콤트로까지 적용했으니, TTS의 재미를 느끼는 데 계절을 가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7천8백90만원.



2016 혼다 파일럿

언뜻 심심해 보일 수도 있다. 여느 독일 브랜드의 화려한 SUV에 비해 눈에 띠는 일이 적을 수도 있다. 덩치는 큰데 수수하고 담백하기까지 해서, 그저 낙낙한 SUV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대의 사륜구동 SUV를 끌고 대관령 빙판길을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사심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차는 거의 혼다 파일럿뿐이던 겨울을 똑똑히 기억한다. 우직한 뚝심과 기계적인 믿음, 여기에 광활하기까지 한 공간감까지. 3471cc V6 가솔린 직분사 엔진의 최고출력은 280마력, 최대토크는 36.2kg·m이다. 8명까지 탈 수 있는 대형 SUV의 실내에는 거의 모든 활용 장비를 싣고 있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영동 고속도로에서는 폭설을 만났는데, 멀쩡히 직진하던 어떤 세단의 꼼무니가 힘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혼다 파일럿은 묵묵히 갈 길을 갔다. 그날 이후 파일럿을 의심한 적이 없다. 진짜 실용적인 차는 혼다가 잘 만들고, 그걸 아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 지금 계약해도 내년 3월이나 받을 수 있다. 5천3백90만원.



볼보 크로스 컨트리(V60)

볼보는 '크로스 컨트리'라는 이름으로 장르 확장에 나섰다. 볼보 크로스 컨트리는 왜건과 SUV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활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모델이다. 크로스 컨트리(V60)는 정말 잘 만든 볼보 전통의 왜건 V60을 기반으로 차고를 6.5센티미터 높였다. 하지만 SUV보다는 낮다. 볼보의 간판 SUV XC60과 비교하면 1.7센티미터 낮다. 왜건의 공간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SUV보다는 낮은 차체를 통해 무게중심을 낮춘 셈이다. 2401cc 직렬 5기통 트윈터보 엔진의 최고출력은 190마력, 최대토크는 42.8kg·m이다. 평소에는 앞바퀴에 100퍼센트의 힘을 보내다가 어느 한 바퀴라도 접지력을 잃을 땐 뒷바퀴에도 50퍼센트까지 구동력을 나눠주는 방식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했다. 5천5백50만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4 SDV8

SUV를 염두에 두고 최고에 최고를 쫓다 보면 두 대의 자동차를 만나게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둘 중 어느 쪽이 더 출중한가를 가리는 일은 별 의미가 없다. 품위와 호사를 기준 삼아 어느 한쪽의 우위를 가름하는 일도 부질없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오로지 취향일 텐데, 레인지로버에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영국 귀족풍의 격식과 품위가 있다. 품위 있는 인테리어와 안락한 운전 감각은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도 않는다. 4367cc V8 트윈터보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339마력, 최대토크 71.4kg·m을 낸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어떤 길을 달릴 때도 조용한 호수 위에 기만히 떠 있는 것 같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1억 7천1백60만대부터.

BMW 750Li xDrive

BMW가 출시한 모든 차의 꼭대기에 750Li xDrive가 있다. 거의 모든 것의 극단에 있다는 뜻이다. 극단의 호화로움, 극단의 성능, 극단의 안정성, 극단의 쾌락과 권위… 4395cc V8 직분사 트윈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자그마치 450마력이다. 최대토크는 66.3kg·m이다.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초다. 과연 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함의 성능이다. 실내는 극단적으로 안락하다. 바깥에서 나는 어떤 소리도 안으로 파고들 틈이 없다. 대신 바우어 앤 월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내는 음악 소리가 명료하다. 여기에 이 드직한 엔진이야 말로 팽팽하고 꽂꽂하게 듣기 좋은 소리를 낸다. 가장 호화로운 세단이라고 BMW의 성격이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핸들링은 여전히 날카롭고, xDrive는 BMW 사륜구동의 믿음직한 이름이다. 1억8천9백만~1억9천2백만원.



지프 레니게이드 2.0 AWD

누군가는 이 차를 두고 '도심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일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랭글러보다는 부드러워 보이니까. 다른 누군가는 '소형'이라는 말에 멈칫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모든 수사는 접어두고, 오로지 지프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는 게 어떨까? 레니게이드는 고유의 험로 주파력과 사륜구동 기술을 그대로 갖춘, 명실상부한 지프다. 크기와 장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1956cc 직렬 4기통 싱글터보 디젤 엔진의 최고출력은 170마력, 최대토크는 35.7kg·m이다. 눈길과 모래길, 진흙길을 달릴 때는 알아서 최고의 접지력을 확보하는 지형 설정 시스템과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도 갖췄다. 어떤 난이도의 오프로드에서도 물러설 일 없는 진짜 SUV라는 뜻이다. 그러니 겨울이 두려울까? 레니게이드(renegade)는 변절자, 이탈자라는 뜻. 지프가 생전 처음 만든 소형 SUV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페라리 FF



페라리 FF

모든 사륜구동이 SUV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페라리 FF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성능 또한 그렇다. 무려 6262cc에 달하는 V12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의 최고출력은 660마력, 최대토크는 69.6kg·m, 시속 100킬로미터 가속 시간은 3.7초… 여기에 시속 335킬로미터나 되는 최고속도는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페라리 중 유일하게 네 명이 탈 수 있고, 편하게 운전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힘과 성능을 제대로 다루는 데는 어느 정도의 능숙함이 필요겠지만, 든든한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돼 있다. 이 차를 소유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트랙과 눈밭을 아우를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의 자유일까? FF는 페라리(ferrari) 포(four)를 줄인 말이다. 이름 그대로 사륜구동 페라리라는 뜻. 가격은 4억6천만원.

메르세데스-벤츠 G350 블루텍



메르세데스-벤츠 G350 블루텍

육로로 만주까지 달릴 수 있다면, 그럴 때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G클래스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만드는 모든 SUV의 꼭대기에 있다. G350 블루텍은 2987cc V6 싱글 터보 엔진을 쓴다. 최고출력은 211마력, 최대토크는 55.1kg·m이다. 디자인은 1979년에 1세대 G클래스가 나왔을 때의 요소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공기역학 같은 건 필요도 없다는 듯이 고집스러운 직선은 G클래스를 요즘 나오는 다른 모든 차와 단호하게 구분 짓는다. 그 강인함으로부터 이 차의 힘과 주파력을 예상할 땐 당신의 모든 상상력을 극대화해도 좋을 것이다. 가격은 1억4천2백만원. 이 차를 바탕으로 만든 고성능 버전, 메르세데스-AMG G63의 가격은 2억20만원이다. 5461cc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거의 지구의 물리법칙을 다 거스를 기세다.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히로시마·야마구치·시모노세키”

1404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고, 1429년부터 외교사절단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일본을 넘나들며 외교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조선 통신사.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초청으로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따라 3일 동안 일본의 서쪽을 누볐다.

Writer 조기희 · Photographer 김원섭(프리랜서)

히로시마에 남은 조선통신사의 흔적

히로시마현의 첫인상은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연상케 했다. 우리나라보다 한 달 정도 계절이 느린 듯, 푸른 산 곳곳에는 올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시모 카마가리 섬으로 향하는 차 밖 풍경도 밀감이 주렁주렁 열린 밀감나무가 끊임없이 보였고, 바닷바람도 제법 불었다. 자연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일본의 유일한 조선 통신사 자료관이 있는 ‘쇼토엔’으로 향했다. 쇼토엔은 바다를 배경으로 잘 정돈된 정원,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고치소 이치반 관’이라 불리는 자료관에 들어서 면 눈에 띄는 것은 조선통신사 선이다. 화려한 장식과 구조적인 배의 디자인으로, 비록 축소된 모형이지만 위엄이 느껴졌다. 그들의 여정을 기록한 지도부터 각종 문헌

이 보였고, 일본에 상륙했을 때 입은 옷, 먹은 음식까지 살펴보았다. 그 당시의 조선 통신사들을 더욱 가까이서 만난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료관을 보고 난 뒤 조선인 도공 이참평의 작품을 포함한 일본 국내외의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도자기 관도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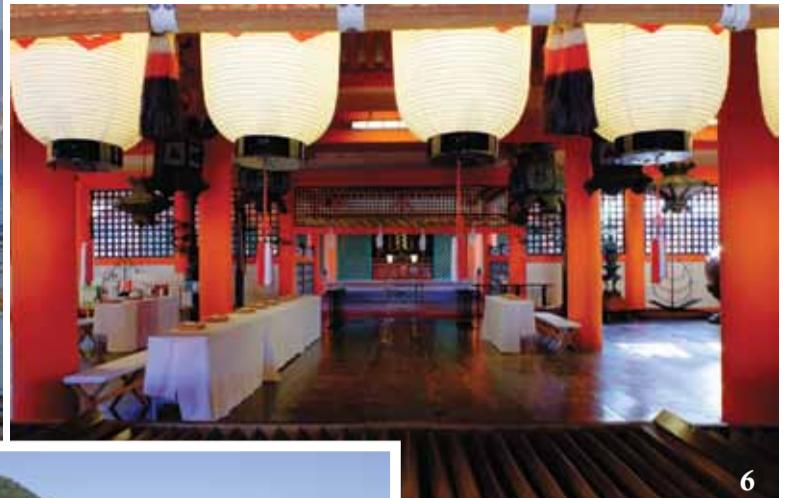
저녁시간에 이르러서는 겨울철에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제철 음식인 굴을 맛보러 갔다.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 한 입 물면 신선한 바다 내음이 입안에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생굴부터 굴튀김, 겉만 살짝 구운 굴로 만든 다채로운 굴 요리를 즐겼다. 바다 내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히로시마에 왔으면 오코노미야끼를 꼭 먹어야 한다는 관광의 법칙(?)에 따라 오코노미야끼 전문점으로 향했다. 이렇게 첫날 밤은 ‘먹방’과 함께 깊어갔다.



일본의 바다빛 역사와 전통을 느끼다

미야지마구치 선착장에서 폐리로 10여 분이면 미야지마 섬에 도착할 수 있다. 잔잔하게 흐르는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오토리이’와 ‘이쓰쿠시마 신사’를 만날 수 있다. 오토리이는 녹나무로 만들어진 미야지마를 상징하는 구조물이다. 바닷속에 자체 무게로 우뚝 서 있어 장엄하고 독특한 구조를 뽐낸다. 6세기 후반에 창건된 이쓰쿠시마 신사도 바다 위에 만들어져 있어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다음 일정은 일본의 3대교 중에 하나라는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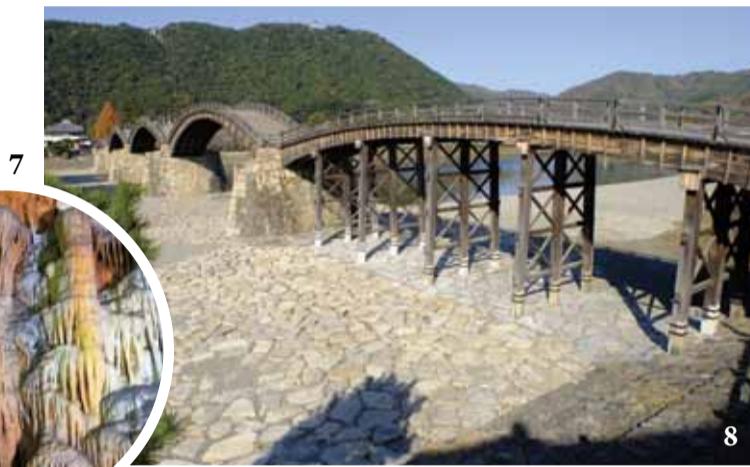


구치현의 '긴타이교'로 갔다. 긴타이교는 길이가 약 200m, 폭이 5m의 목조 다리다. 정교하고 독창적인 아치형 구조의 다리는 오르락내리락하며 건너는 경사길이 재밌다. 따뜻한 햇볕과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긴타이교의 풍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아마구치현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석회암 지대에 나타나는 카르스트 지형의 '아키요시다이'를 갔다.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는 한눈에 시선을 압도했다. 아키요시다이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아키요시 동굴'이 있다. 석회암 동굴

인 아키요시 동굴은 수십만 년에 걸친 자연작용으로 지금과 같은 거대하고 신비한 동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동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황금주'다. 석주 주변에 은은하게 황금빛을 내는 황금주는 동굴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거의 뒷을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다. 오랜 세월을 거쳐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종유석과 석순, 투명한 지하수, 100개의 절시라 불리는 지형 등 수많은 장관이 이어진다. 둘째 날,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는 에도시대때 술과 함께 식사를 즐긴 연회에서 유래한 '가이세키' 요리를 맛보았다. 일본식 정찬으로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겨 있어 한 끼 저녁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온천을 하며 여행의 피로를 풀며, 내일을 기대했다.

일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정취

시모노세키에서의 일정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시작했다. 제일 처음 찾은 곳은 '아카마 신궁'이다. 1185년 건립된 이 신사는 8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도쿠 왕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400년 전 조선 통신사의 혼슈 지역 첫 방문지이자 숙박지이기도 하



다. 조선통신사는 한국에서 종이, 봇, 벼루 등을 가져와 안도 천왕을 애도하는 추모 시를 남기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새로 발견된 조선통신사 관련 문헌이 시모노세키시의 문화재로 등록된 일도 있었다. 이는 아직 일본 어딘가에 발견되지 않은 조선통신사의 흔적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아카마신궁 길 건너편 공원에는 2001년 8월 25일에 세워진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도 볼 수 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카마신궁을 뒤로하고 전통 말차 체험을 할 수 있는 조후 모리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 안채 곳곳에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아래 말차를 마시며 여유로움을 즐겼다.

시모노세기는 일본에서 복어 취급량과 아귀 수화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시모노세기의 명물인 복어 회부터 복지리, 복 튀김, 복을 넣어 지은 밥 등으로 구성된 복어 풀코스 요리는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음식뿐만 아니라 복을 이용한 소품과 간식 등이 다양해 구경하기에도 흥미롭다. 건강한 복요리로 점심을 먹은 뒤 '모지'로 이동했다. 벤치에 앉아 항구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다리 가운데가 열리는 '블루윙 모지 도개교'도 독특한 장관을 연출한다. 투어의 마지막 일정은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였다. 수많은 신증

- 1 자연 속에 지어진 이즈쿠시마 신사.
- 2 일본 유일의 조선통신사 자료관 소토엔.
- 3 위엄 있고 화려한 조선통신사 선.
- 4 조선통신사를 대접하기 위해 차리던 음식 상.
- 5 바다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오토리이.
- 6 신비로운 분위기의 이스쿠시마 신사 내부.
- 7 아키요시 동굴을 채우고 있는 종유석.
- 8 클래식한 멋을 내는 목조 다리, 긴타이교.
- 9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모리 저택.
- 10 조선통신사가 혼슈의 첫 방문지로 택한 아카마 신궁.
- 11 다자이후 텐만구에 있는 황소 상을 만지면 합격한다는 전설이 있다.

교육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다자이후 텐만구는 일본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험생 부모들도 많이 찾아 합격을 기원하는 곳이다. 신사를 나올 때쯤에는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투어의 일정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신사에서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동안의 여행을 되짚어봤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과 같은 여정을 밟았다는 것만으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일본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었고, 일본의 숨겨진 매력을 온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12월의 잊을 수 없는 3일이었다.

최재혁조 일본정부관광국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설국(雪國) 아오모리로 떠나는 온천 힐링여행

1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뜨끈뜨끈한 온천이 생각난다. 눈을 바라보며 온천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혼슈(本州)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青森)현은 겨울여행지로 제격이다. 겨울이면 설국으로 변신하는 아오모리는 여행객을 유혹한다.

Writer 강성철 · Photographer 박준현

아오모리현은 쓰가루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훗카이도와 마주 보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시라카미 산지'를 비롯해 '도와다 호수', '오이라세 계류', '핫코다산' 등 아름다운 대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아오모리는 일본 전국 사과 생산량의 56%를 생산하는 사과 명산지로 한국에서 '아오리'라 불리는 사과품종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계절 변화가 뚜렷한 아오모리현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데 특히 아오모리시에서 열리는 '네부타 마쓰리'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다. 축제 기간 동안 3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아오모리를 방문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겨울철에 아오모리를 대표하는 여행의 키워드는 눈, 온천, 음식, 스키다. 일본 내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일년에 5개월이나 눈으로 뒤덮인 설국의 고장이기도 하다.

드라마 <착한 남자> 촬영지, 호시노리조트 아오모리야(青森屋)

아오모리현은 온천지의 수와 온천 용출량이 일본에서 4위로 알려져 있다. 일본 100대 온천 중 10년 연속 1위에 오를 만큼 유명한 호시노리조트 아오모리야의 고마키 온천은 온천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원천 100%의 질 좋은 천연온천으로 매끄러운 감촉의 알칼리성이며, 피부 미용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탁월하다. 실내 온천인 히바유는 일본 3대 목재로 꼽히는 아오모리의 노송나무를 욕조, 벽, 천장 등에 사용하여 매끄러운 나무의 촉감과 향기로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중 백미는 역시 폭포가 보이는 노천탕 우키유다. 아오모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멋진 정원과 자그마한 폭포, 넓은 연못에 떠 있는 듯한 형상의 욕조 등이 어우러진 노천탕은 계절별로 색다른 멋을 낸다. 자연 한가운데에서 온천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네부타와 천등, 연못에 띄운 유등이 어우러져 하얀 눈 속에서 즐기는 겨울밤의 노천욕은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말 그대로 환상적이고 동화적이다.

호시노리조트 아오모리야는 현대식 리조트 온천료간으로 22만 평의 넓은 부지에 호텔 건물과 약 1만 평의 광대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연못을 중심으로 정원과 숲길로 구성된 산책로는 시부사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시부사와 공원 연못가와 숲길을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을 추천한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다.

향토음식, 다양한 요리를 맛보며 네부타를 체험하다

호시노리조트 아오모리야의 뷔페 레스토랑 '노레소레 식당'은 고향집의 부엌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어머니의 따스한 밥을 콘셉트로 일식, 양식, 중식, 디저트 등 다양하고 풍성한 요리를 제공한다. 청정의 자연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오모리의 가리비, 참치 등 신선한 해산물과 과일, 싱싱한 채소 등 다양한 음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선보인다. 일본 제일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사과나 마늘, 전국에서도 유명한 참치나 넙치 등 산해진미를 살린 향토색이 가득한 음식문화를 맛볼 수 있다. 쇼를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미치노쿠 마쓰리야'에서는 아오모리, 히로사키, 고소가와라, 하치노헤이 지역의 네부타 4대 축제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다. 힘찬 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흥겨운 마쓰리 음악의 연주와 네부타 축제를 재현한 현장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모든 이벤트는 아오모리의 향토요리인 센베지루를 비롯한 명물요리와 함께하여 더욱 즐겁다. 레스토랑 밖 '자와메구 히로바'에서도 매일 밤 무료로 아오모리 민요와 전통악기인 사미센 연주, 네부타마쓰리의 연주 등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니 지루할 틈이 없다.

홈페이지 <http://noresoreaoomoriya.jp/kr/>



1 노천탕 우키유(浮湯)의 겨울 야경. 환하게 빛나는 네부타와 눈 덮인 야경이 일품이다.

2 객실에서 바라본 시부사와 공원 연못.

3 출발 전의 스토브 마차. 연못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4 쇼 레스토랑 '미치노쿠 마쓰리야'에서 제공하는 음식들.

5 쇼 레스토랑 '미치노쿠 마쓰리야'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 작은 네부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쉽고 빠른 사진 저장 솔루션 커넥트 스테이션 CS100



카메라를 기기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면? 콤팩트한 사이즈에 다양한 기능까지 갖췄다면?
캐논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보다 손쉽게 저장하고 공유해보자.

Writer 전규일(프리랜서) · Photographer 이경호(C.영상미디어)

복잡한 사진 저장은 그만, 이제 올려놓기만 하면 끝!

평소 주말여행을 자주 다니는 김대연 씨 가족은 최근 TV로 사진을 보는 재미에 꽃 빠졌다. 영화도 아니고 사진을 TV로 본다고?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광경이지만 큰화면을 가득 채운 여행의 추억들을 영화보다 더 즐겁게 감상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김대연 씨는 마냥 뿌듯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게 캐논 '커넥트 스테이션 CS100'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이하 CS100)은 캐논이 새롭게 출시한 사진 저장 장치. 지금까지 사진 저장은 카메라 메모리 속 사진을 PC로 옮겨서 저장해야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커넥트 스테이션 CS100은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그저 기기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거나 메모리 카드를 꽂기만 하면 사진 저장과 분류는 물론 공유와 인화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복잡한 케이블 연결이나 PC로 옮기는 번거로움이 없이 메모리카드를 CS100에 꽂아 바로 TV화면으로 크게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CS100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유자들은 말한다. 또는 NFC나 Wi-Fi가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CS100 상단부에 카메라를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진을 인식해 카메라에서 기기로 사진을 옮겨준다. NFC나 Wi-Fi가 내장되지 않은 카메라는 기기에 마련된 메모리 슬롯을 이용하면 된다. 복잡한 케이블 연결이나 PC로 옮기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에서 CS100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진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드는 똑똑한 장비다.

공유부터 인화까지, 포토메이트와 사진을 즐기다

제주도에 사는 최병수 씨도 CS100 덕분에 입가에 웃음이 마르지 않는다. 서울에 사는 아들이 수시로 공유해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TV를 통해 원 없이 볼 수 있기 때문. “이게 아주 신기하네. 전원만 켜면 방금 찍은 사진이 들어와있어. 맨날 예쁜 손주들 얼굴 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최병수 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능은 바로 2대의 CS100간에 사진을 송·수신할 수 있는 캐논 이미지 게이트 공유 서비스. 미리 계정을 등록해놓은 2대의 CS100끼리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는 물론 메일로도 즉시 사진을 전송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CS100 하나로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포토 라이프가 가능해졌다. 평소 사진 촬영과 편집이 잦은 사용자들에게도 CS100은 든든한 파트너가 된다.

파워블로거 김아란 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매일 많은 양의 사진을 분류하고 백업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CS100은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정렬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거기에 무선프린트와 연결하면 인화까지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스마트할 순 없어요.”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기를 인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촬영일자와 카메라 기종, 사용자가 설정한 앨범 단위로 분류해주는 똑똑함은 CS100의 자랑. 사진은 촬영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촬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즐거워야 한다는 캐논의 철학이 CS100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 1TB의 넉넉한 저장 용량, 부담 없는 사이즈, 저장과 공유는 물론 인화까지 모두 무선으로 즐기는 편리함까지. CS100과 함께 더욱 즐거운 포토 라이프를 즐길 차례다.

문의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1588-8133, www.canon-c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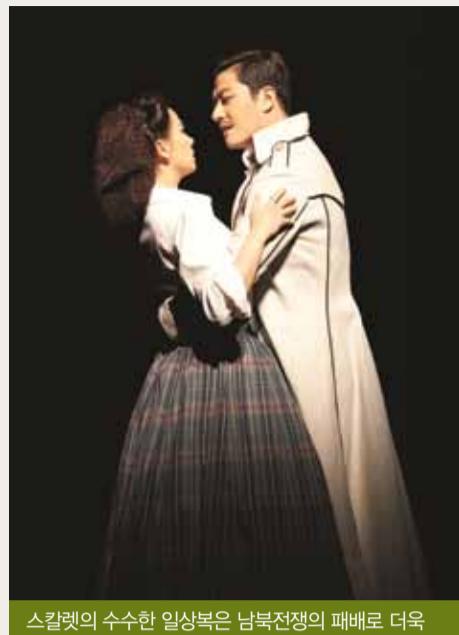
▲ 캐논의 새로운 사진 저장 장치 '커넥트 스테이션 CS100'. NFC 기능 탑재로 본체 상단부에 카메라를 올려놓으면 즉시 사진 데이터가 전송된다.

캐논 커넥트 스테이션 CS100 주요 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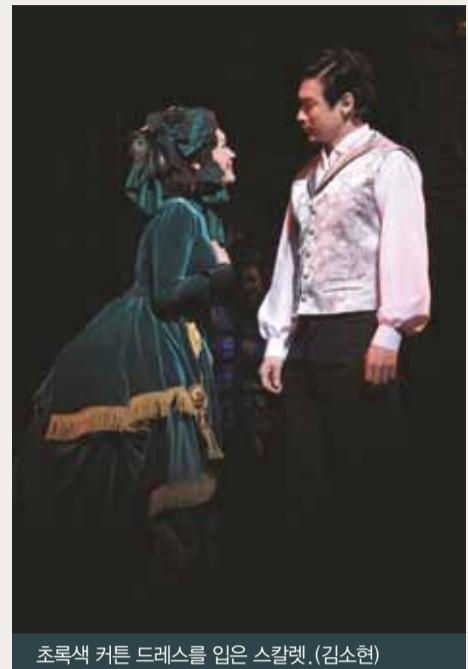
- 크기 및 무게: 15.6×15.6×5.1(570g)
- 지원 포맷: JPEG, RAW(CR2), MP4, MOV, AVCHD 등
- 저장 용량: 1TB(사진 약 15만 매, 동영상 약 70시간(Full-HD 기준))
- 메모리 슬롯: CF, SD메모리 슬롯 탑재
- 주요 기능: NFC 및 Wi-Fi를 통한 사진 전송,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연결, Wi-Fi를 이용한 무선 프린트, 캐논 이미지 게이트를 통한 공유 및 저장
- 별도 무선 리모컨 제공(CS-RC-1)



스칼렛의 소녀다운 매력을 부각시킨 초록 꽃무늬 드레스(김자우)



스칼렛의 수수한 일상복은 남북전쟁의 패배로 더욱
가난해진 상황을 암시한다.(김자우)



초록색 커튼 드레스를 입은 스칼렛.(김소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크린 속 의상이 그대로 무대 위에!

뮤지컬에서 주인공의 의상은 점점 변화해가는 주인공의 성격과 상황을 짐작하게 만드는 뮤지컬 감상의 색다른 즐거움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작품 속 스칼렛 오하라의 의상과 그 의미를 조문수 뮤지컬 의상 디자이너의 설명과 함께 감상해보자. Writer 전규일(프리랜서)



상복 차림의 스칼렛 오하라. 검정 의상이지만 섬세한 레이스와 자수, 비드가 돋보인다. (김소현)



레트가 스칼렛과 다투는 장면에서 입은 스칼렛의 매혹적인 붉은 드레스(바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2016년 새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사가 아닐까? 전 세계 12억 명이 관람한 동명 원작을 무대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꾸준히 사랑받는 명작이다. 〈로미오 앤 줄리엣〉의 작곡가 제라르 프레스귀르비의 흡인력 있는 아름다운 넘버와 역사 속 미국 남부의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한 영상 디자인은 뮤지컬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매력. 특히 주인공들의 바뀌는 패션을 따라 흘러가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재미가 숨어 있다. 조문수 디자이너는 “무대 속 의상의 변화에 여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의 내면의 변화와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단서가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스칼렛의 키 컬러는 그린과 레드. 초반 애슬리를 유행하기 위한 남부 소녀의 발랄한 매력이 그린 드레스에 은연 중에 드러나 있다. 어머니의 커튼을 뜯어서 만든 옷을 입고 레트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장면에서도 그녀는 초록색 벨벳 커튼을 몸에 두르고 있다.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초록색 커튼으로 몸을 휙감은 채 넘버를 부르는 장면은 많은 팬이 사랑하는 명장면이기도 하다.

“사실 스칼렛이 가장 많이 입는 옷은 상복이다. 두 남편, 그리고 친구 멜라니까지 떠나보낸 그녀는 비록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지만 감출 수 없는 고혹적인 매력이 드러난다”는 조문수 디자이너의 설명처럼 우아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비드, 섬세한 자수가 돋보이는 스칼렛의 상복은 슬픔 속에서도 묘한 유혹이 느껴진다.

한편 스칼렛 오하라의 또 다른 키 컬러인 레드는 마침내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한 그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색이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온 레트와 결혼하면서 예전의 부유함을 되찾은 스칼렛은 점점 화려해지는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한층 성숙한 여인의 향기, 청순함을 뛰어넘어 섹시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붉은색 벨벳 의상은 레트뿐만 아니라 관객들까지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장치다.

무대가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스칼렛의 의상도 점점 선명하게 변화가 감지된다. 멜라니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는 바로 레트였음을 깨닫는 스칼렛.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검은 드레스이지만 무대 위 조명을 받자 점점 보랏빛으로 바뀌며 훨씬 성숙해진 여인의 풍모를 보여준다. 조문수 디자이너는 “스칼렛 오하라는 지금까지도 현대 여성의 룰 모델로 손꼽히는 매력적인 주인공이다. 의상의 복원은 단순히 원작의 향수를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스칼렛 오하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결말을 맺는지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스토리”라고 말했다.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블랙에서 퍼플로 변하는 스칼렛의 드레스(바다)



소노펠리체 뱅킷 & 컨벤션 품격 있는 웨딩을 선사하다

공항터미널, 예식장으로 잘 알려진 서울 삼성역의 서울컨벤션이 '소노펠리체 뱅킷 & 컨벤션(Sono Felice Banquet & Convention)', 이하 소노펠리체 컨벤션'으로 새 출발한다. 행복한 웨딩의 순간부터 국제 콘퍼런스, 연회 등 의 각종 행사를 차별화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소노펠리체 컨벤션을 소개한다.

Writer 이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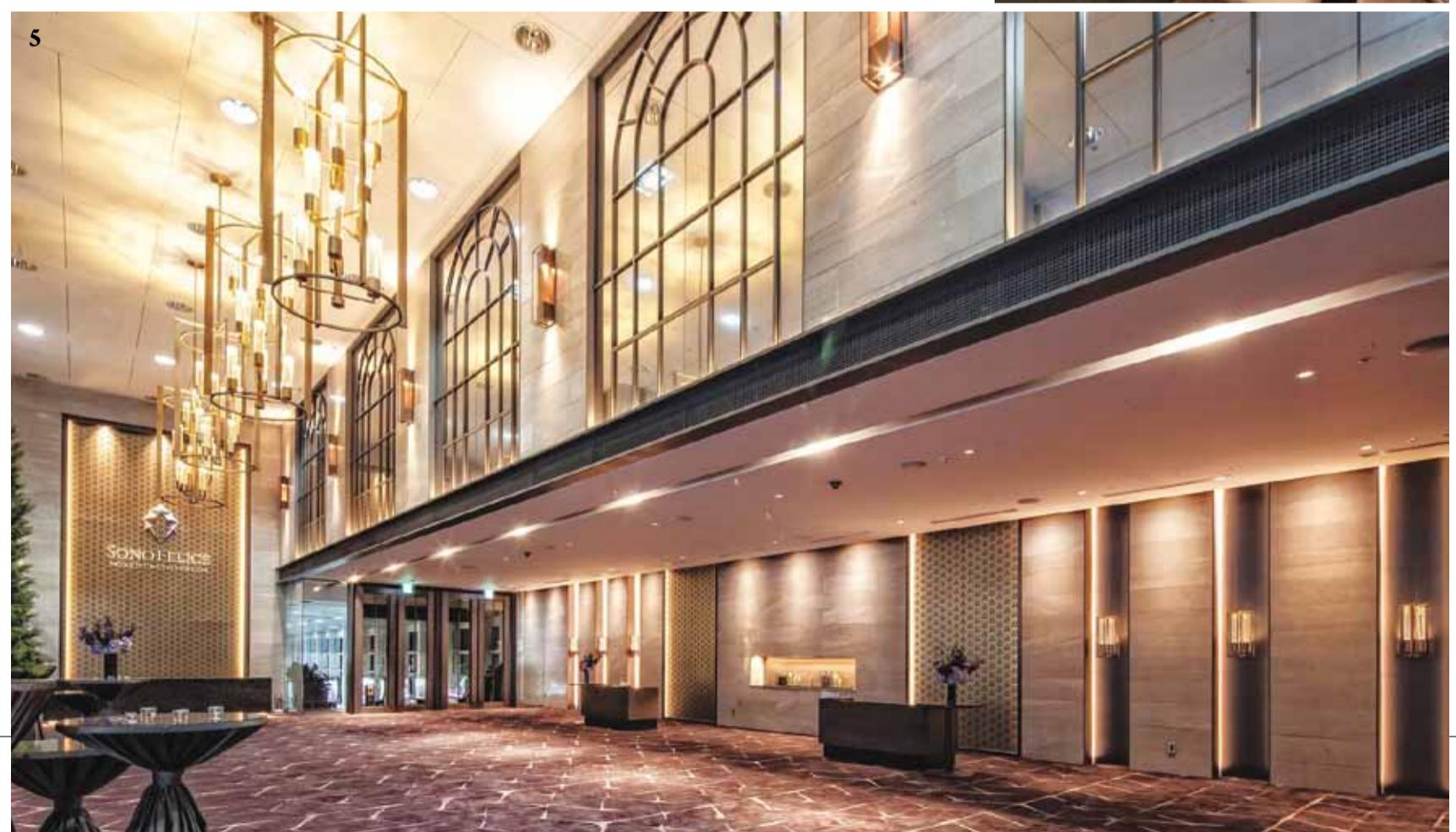
이탈리아어 소노펠리체는 꿈과 이상형을 뜻하는 'SONO'와 행복, 즐거움을 뜻하는 'FELICE'의 합성어로 '꿈처럼 행복한 삶을 누린다'를 의미한다. 아름다운 웨딩의 순간과 나아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만끽하기 바라는 소노펠리체 컨벤션의 바람이 느껴진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예약부터 예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웨딩 플래너가 일대일로 전담해 웨딩 전문 프로듀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을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옆에서 챙겨주고 성공적인 결혼식을 위해 성심성의껏 돋는다.

소노펠리체 컨벤션은 그 이름에 걸맞은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실내장식이 특징이다. 먼저 메인 로비는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공간이다. 유럽의 대저택을 연상케 하는 곡선형 계단과 높은 천장, 그리고 자연채광이 그대로 쏟아져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은 소품에도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미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손님을 맞이하며 많은 축하와 인사를 나누는 장소인 로비는 복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소노펠리체 컨벤션의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계한 리셉션 라운지도 있다.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음료 및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좌석도 마련했다. 이제 메인 이벤트가 열리는 소노펠리체 컨벤션의 내부를 살펴보자. 먼저 '다이아몬드 홀'은 구조적인 천장 디자인에 조명 효과만으로 신비로움과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요즘 웨딩 트렌드인 프라이빗 웨딩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한 '사파이어 홀'도 마련되어 있다. 더욱 로맨틱한 웨딩 콘셉트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오브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다. 이에 더해 특급호텔에서 영입한 스타 셰프들이 선보이는 최고



급 연회 메뉴는 소노컨벤션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요소다. 신부대기실은 은은한 조명과 안락한 가구를 배치해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다. 널찍한 규모도 자랑할 만하다. 우아한 무드에 전통미를 더해 색다른 멋이 풍기는 폐백실도 눈에 띄는 공간이다. 소노펠리체 컨벤션은 국내 제1의 비즈니스 허브인 삼성역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웨딩 훌뿐만 아니라 기업 회의, 국제 콘퍼런스까지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 해외 관광객의 거점으로 한국 도심 공항을 이용하며 서울 도심 내 체크인 서비스의 편리성을 활용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대명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 전국의 리조트, 워터파크, 스키장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소노펠리체 컨벤션 예약실 02-2222-7401~5
홈페이지 www.sonofeliceconvention.com



피부과 전문의·이노팜(주) 대표 임재영

피토케미컬의 매력에 빠진 남자

피부과학에 기초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이노팜. 그곳의 대표는 피부과 전문의 임재영 원장이다. 연구원 출신의 의사이면서 노벨평화상을 두 번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을 존경한다는 임 원장. 그의 특이한 경력에 대해 들어봤다.

Writer 박준현

피토케미컬에 푹 빠진 연구원

연세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유전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부산대 의대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무려 30여 년. 기초부터 연구, 임상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치료를 병행해온 피부과 전문의 임재영 원장의 특이한 경력이다.

“저는 본래 생명공학을 전공하면서 질병 치료와 피토케미컬의 역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 회복에 피토케미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자연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피토케미컬을 임상에 구체적으로 접목해보고자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피토케미컬은 임 원장이 의사의 길을 걷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피토케미컬이란 무엇일까?

“피토케미컬은 식물이 자기방어를 위해 만들어내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아미노산 유도체로서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 속으로 잘 스며듭니다. 숲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피토케미컬의 일종입니다. 피토케미컬은 항암, 항염, 항산화 등의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1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임재영 원장.
2 피토라이저 성분을 함유한 '다일리아 라인'

1



2



12년 만의 연구 끝에 맺은 결실

임 원장은 피토케미컬 연구에 12년 동안 매진했고 2015년에 피토라이저(PhytoLiser)라는 화장품을 출시했다. 피토케미컬이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표피의 순환을 촉진하며, 진피층의 콜라겐을 합성 유도하는 것을 알아냈고, 기능별로 피부에 유익한 최적의 피토케미컬을 조합하여 피토라이저를 만들었다. 피토라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젊어지면서 각종 기미, 검버섯, 잡티 등 불필요한 색소가 옅어지고, 잔주름이 빠르게 개선되며, 피부의 탄력이 증가한다.

“피토라이저는 아침 9시에 병원 문을 열어 저녁 7시까지 진료를 하고 나서 연구원들과 토론하며 밤늦게까지 연구하여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진료실 옆에 제약회사 버금가는 실험실을 차려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사는 삶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은 모두 고령입니다. 제 나이는 겨우 54세입니다. 폴링 박사는 1901년에 태어나 94세에 타계할 때까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제게는 연구에 매진할 시간이 최소한 40년 이상 있는 셈이죠. 저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속적인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임 원장의 꿈은 세계적인 바이오연구소를 갖는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이오 연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임 원장.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화장품은 단순히 멋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화장품에 대한 저의 철학입니다. 이노팜은 12년의 연구 끝에 기미 제거 화장품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많은 호평 속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를 거듭해 더욱 우수한 화장품과 피부 관련 제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임재영 원장, 그의 꿈이 이뤄지길 응원한다.

Bulletin

Writer 이은정



FURNITURE

도모스디자인, 실렌시오 리클라이너 세트

도모스디자인이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한 실렌시오 리클라이너 세트를 선보인다. 2.5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에비타와 1인용 리클라이너 사피라로 구성된 실렌시오 리클라이너 세트는 우수한 구션감과 자유로운 각도 조절 기능을 갖췄다. 에비타와 사피라 세트의 시트는 천연 소가죽으로 마감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등받이와 발 받침대는 다양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두 개의 시트로 구성된 에비타는 시트마다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지원해 최적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문의 1566-5629

CAR



BMW 그룹 코리아, 서비스 센터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 실시
BMW가 차가 고장 났을 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한다. 수리가 필요한 고객의 차량을 픽업하고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한 뒤 다시 고객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문의 02-2038-8215

FASHION



락포트, 스타일 퍼포즈 윈 텁 슈즈

편안한 슈즈를 선보이는 브랜드 락포트가 클래식한 스타일을 즐기는 남성을 위한 스타일 퍼포즈 윈 텁 슈즈를 제안한다. 2016 S/S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이 슈즈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한다. 문의 02-6137-5100

RESORT



클럽메드, 동아오 아일랜드 리조트

클럽메드에서 동아오 아일랜드 리조트의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올여름 신규 오픈 한 동아오 아일랜드 리조트는 중국 광동성 주 하이 시 남동쪽 동아오 섬에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해변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문의 02-3452-0123

BEAUTY



비오템, 보디로션 2종

비오템이 거울절 건조해진 보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줄 보디로션 2종을 제안한다. 레꼬포렐 보디로션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사용감이 가볍다. 오 비타미네 보디로션은 각종 보습 인자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 본연의 부드러움을 되찾아준다. 문의 02-6370-8556

HOTEL



임피리얼 팰리스, 원터링 패키지

임피리얼 팰리스가 이득한 객실에서의 1박, 2인 조식권, 몰튼 브라운 원터 여행용 키트, 알레산드로 멘디니 전시 2인 입장권, 조식 룸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구성한 원터링 패키지를 제안한다. 기간은 2016년 2월 29일까지다. 문의 02-3440-8000

FURNITURE



영동 가구, 히몰라 4668

영동 가구가 구조적인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인 기능을 갖춘 히몰라 4668 체어를 제안한다. 등받이를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어 완벽한 리클라이닝 시트로 만들 수 있다. 2인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가족과 친구와 함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문의 02-547-7850



FASHION

버버리, 액세서리 컬렉션

버버리가 런웨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액세서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먼저 오버사이즈 퍼리 체크 베이비 버켓백은 버버리의 시그니처 체크 패턴으로 제작한 버킷백에 체인 스트랩으로 독특한 멋을 더했다. 내부에 파우치 포켓을 장착하고 가방의 입구를 자석 여밈으로 만들어 더욱 실용적이다. 토미스 베어 액세서리는 부드러운 체크 캐시미어 소재의 체크 원단으로 만들었다. 1930년대부터 봉제 인형을 제작해온 영국의 메리소트사에서 완성했다. 문의 02-3485-6639

FASHION



브리오니, 소프트 캐시미어 코트

브리오니가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디자인의 소프트 캐시미어 코트를 선보인다. 캐시미어 100%로 만들어 가볍지만, 보온성이 뛰어나다. 그레이와 레드 컬러 체크가 조화를 이뤄 더욱 스타일리시한 원터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274-6482

WATCH



론진, 론진 마스터 컬렉션

론진이 세프-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24시간 세계 타임존, 문페이즈, 3bar 방수 기능을 갖춘 론진 마스터 컬렉션을 제안한다. 디아얼 크기는 38.5mm부터 42mm 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투명 백 케이스를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10-1597

FASHION



아이잔 컬렉션, 파스텔 미디 코트

아이잔 컬렉션이 폐미닌한 감성을 자아내는 파스텔 미디 코트를 소개한다. 영동이를 살짝 덮어주는 길이로 거울절에도 활동하기 불편함이 없다. 오버핏의 실루엣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색상은 블루와 아이보리 두 가지로 선보이며 가격은 128만원이다. 문의 02-6960-0702

WATCH



지라드페리고, 트래블러 라지 데이트, 문페이즈 & GMT

지라드 페리고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트래블러 라지 데이트, 문페이즈 & GMT 시계를 선보인다. 로컬 시간과 한국 시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문페이즈 기능 및 46시간 자동 작동이 가능하다. 문의 02-3467-8372

FASHION



피아제, 금마장 시상식 게스트로 하지원 초대

지난해 열린 대만영화제 금마장 시상식에 배우 하지원이 피아제의 게스트로 초대되었다. 하지원은 피아제 알티플라노 골드 브레이슬릿과 포제션 링으로 깔끔하고 절제된 스타일링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의 02-540-2297

LIVING



오디오 갤러리, 골드 문트

오디오 갤러리에서 골드 문트의 크기가 가장 작지만 파워풀한 기능을 갖춘 나노 메티스 와이어 리스 스피커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와이어리스 스피커와 연동 가능한 무선허브 탈리스만을 제안한다. 컬러는 화이트, 블랙 등 4가지로 선보인다. 문의 02-516-9055

BOOK



그림과 문장들

그림과 글이 나란히 서서 서로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보듬는다.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을 동시에 품고 싶은 지적 욕심이 많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일거양득형 책.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림 옆에 비슷한 성격의 문학 글귀를 재치 있게 매치해놓았다. 하윤선 저음, 루비박스, 1만5천8백원.



밥상이 간단할수록

저칼로리 국물요리

1인 가족이 늘어나는 시대, 혹은 초고령화 사회에 무척 반기운 책이다. 깨나마다 진수성찬을 차릴 형편이 안 될 때 맛깔나는 국물 요리는 열 반찬 안 부려운 밥상 위 효자 아이템. 밥과 환상의 케미를 이루는 글로벌 국물요리 레시피가 모두 모여 있다. 주부의 벗사 역음, 배성인 옮김, 마티, 1만3천원.



오십, 마침내 내 삶을 찾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거친 성공한 기업가인 저자가 나이 오십에 겪을 수 있는 온갖 역경에 대해 털어놓으며 지혜롭게 중년을 보낼 수 있는 팁을 알려준다. 돈, 건강, 가족, 친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자. 앤런 히스 저음, 이경식 옮김, 더 웨스트, 1만4천5백원.



당신이 모르는

기적의 장수비결 따위는 없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은 블로초가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위한 안내서가 아닐까? 세계적인 장수촌에서 힌트를 얻은 건강 원리와 생활방식, 구체적인 실천법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다. 존 티킬 저음, 김성훈 옮김, 한문화멀티미디어, 1만4천5백원.

DESIGN AND TECHNOLOGY.



LUMINOR 1950
8 DAYS GMT (REF. 233)

PANERAI
LABORATORIO DI IDEE.

현대 압구정본점 2F 02-3449-5922
신세계 본점 B1F 02-778-7870

현대 무역센터점 2F 02-3467-8455
신세계 강남점 2F 02-3479-1986

갤러리아 EAST 1F 02-512-6088
신세계 센텀시티점 2F 051-745-1350

파네라이 제품은 위의 공식 매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PANERAI.COM